



한국소비자원

소비에 가치를! 시장에 신뢰를!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5. 3. 25.(화) 06:00	배포일	2025. 3. 24.(월)
담당 부서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담당자	김소영 팀 장(043-880-5421) 성시현 조사관(043-880-5425)

추락·미끄러짐 등 가정 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 2024년 「소비자 피해정보 동향 및 통계 분석집」 발간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된 피해정보를 분석해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 기관 등 112개 피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전 연령대에서 안전사고 다발장소가 가정으로 나와

2024년 CISS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정보는 총 85,639건으로, 전년(79,264건) 대비 8% 증가해 최근 5년 중(2020~2024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 20년 70,022건 → '21년 74,000건(5.7% ↑) → '22년 78,591건(6.2% ↑) → '23년 79,264건(0.9% ↑) → '24년 85,639건(8.0% ↑)

생애주기별* 위해 발생 장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가정(주택) 내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다. 특히 신체적 제약으로 부상의 위험이 큰 '영유아'(75.0%)와 '고령자'(68.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신체적·행동적·환경적 요인에 의한 유사성을 고려해 연령분석이 가능한 63,804건으로 생애주기별 분석 수행
영유아(0~5세), 어린이(6세~12세), 청소년(13세~18세), 청년(19세~34세), 성인(35세~64세), 고령자(65세~)

[가정 내 안전사고 접수 비율]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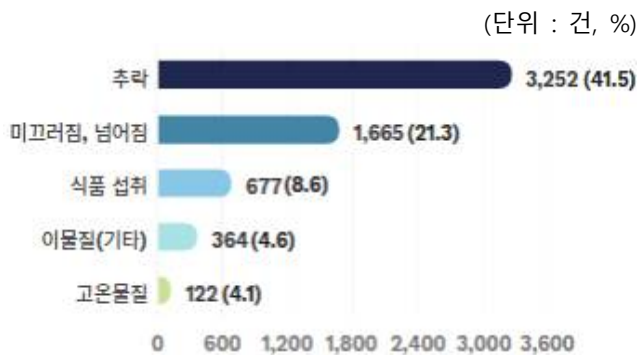
□ 가정 내 ‘영유아’ 추락사고, 2명 중 1명은 침대에서 발생

세부적으로 ‘영유아’의 가정 내 안전사고(7,830건)의 주요 원인은 추락(3,252건, 41.5%)으로, 특히 침대(1,550건, 47.7%)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전체 추락 사고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최근 주목할 점은 ‘옷 갈아입히는 테이블(기저귀 교환대)’(144건, 4.4%)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2021년(51건) 대비 182.4% 증가*한 것인데, 주로 기저귀를 갈아입히는 동안 영유아가 낙상하는 사례가 많아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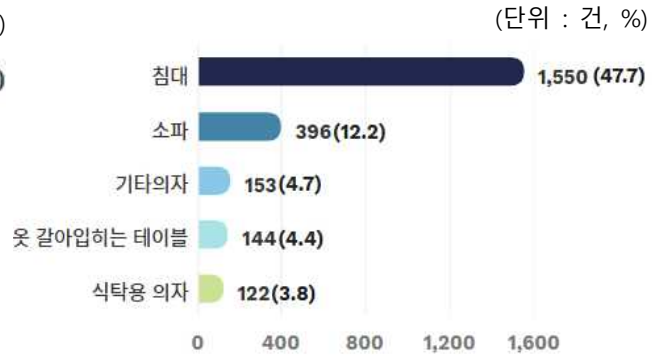
* ‘22년 51건 → ‘23년 125건(145.1% ↑) → ‘24년 144건(15.2% ↑)

[가정 내 영유아 주요 위해원인 현황]



※ 상위 5개 위해원인 추출

[‘추락’ 관련 주요 위해품목 현황]



※ 위해원인 ‘추락’ 중 상위 5개 위해품목 추출

□ ‘고령자’ 미끄러짐 사고에 주의, 특히 욕실에서 전년 대비 116.5% 증가

‘고령자’의 가정 내 안전사고(10,751건) 원인으로는 ‘미끄러짐 · 넘어짐’(7,423건, 69.0%)이 가장 많았다.

특히 ‘욕실’(3,338건, 45.0%)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전년(1,542건) 대비 116.5% 증가했는데, 주로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3,174건) 문틀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86건)였다.

[가정 내 ‘고령자’ 주요 위해원인·장소 현황]

(단위 : 건, %)

순위	구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증가율
1	미끄러짐·넘어짐	4,022	7,423	84.6
	욕실	1,542 (38.3)	3,338 (45.0)	116.5
2	추락	1,014	1,119	10.4
3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1,035	820	△20.8

□ 가정 내 추락·미끄러짐 안전사고,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최우선

실내 생활이 비교적 많은 영유아와 고령자는 가정 내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하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 내 설치된 가구 등의 위해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침대에는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과 충격 흡수용 바닥 매트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스티커)을 부착하고, 밝은 조명을 설치하며, 사용 후 물기를 즉시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영유아’와 ‘고령자’의 안전사고를 집중 분석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4년 소비자 피해정보 동향 및 통계 분석집」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누리집(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CISS 홈페이지 내 ‘안전이슈’ - ‘소비자위해동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하였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해정보 신고]

- (홈페이지) www.ciss.go.kr 에서 ‘위해정보 신고하기’ 클릭
- (핫라인) 국번없이 080-900-3500



위해정보 신고



1. 일반 현황

연도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는 위해정보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24년에는 총 85,639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8.0%(6,375건) 증가함.

[연도별 위해정보 접수 건수]

(단위 : 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70,022	74,000	78,591	79,264	85,639
전년 대비	증감 건수	-	3,978	4,591	673	6,375
	증감률	-	5.7	6.2	0.9	8.0

※ 증감률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장소별 현황

- 위해발생장소는 ‘주택’이 전체의 51.3%에 해당하는 43,9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로 및 인도’ 10,137건(11.8%), ‘숙박 및 음식점’ 4,250건(5.0%), ‘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 1,438건(1.7%) 등으로 나타남.

[장소별 상위 5개 위해정보 접수 건수]

(단위 : 건, %)

장소(대분류)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증감건수	증감률
주택	44,904	56.7	43,910	51.3	△994	△2.2
도로 및 인도	5,413	6.8	10,137	11.8	4,724	87.3
숙박 및 음식점	4,486	5.7	4,250	5.0	△236	△5.3
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	1,594	2.0	1,438	1.7	△156	△9.8
스포츠/레저시설	1,665	2.1	1,242	1.5	△423	△25.4

*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소 및 확인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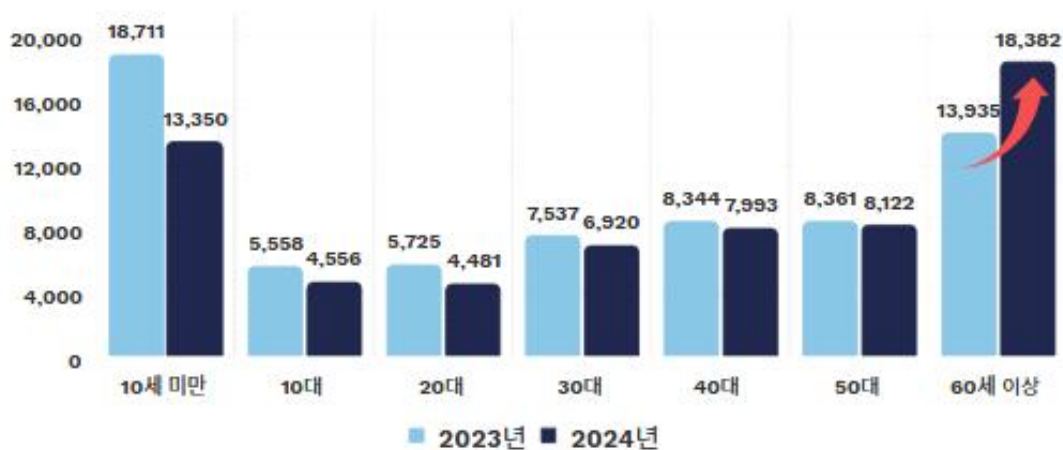
□ 연령별 현황

○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18,382건(2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세 미만' 13,350건(15.6%), '50대' 8,122건(9.5%), '40대' 7,993건(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연앙인구* 기준 인구 천 명당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전체 1.7건으로, '만 10세 미만'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1.3건, '30대' 1.1건 순임.

* 그 해 중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인구수

[연령별 위해정보 접수 건수]



연령대	2023년			2024년			
	건수	비율	인구 천 명당 발생 건수**	건수	비율	전년 대비 증감(률)	인구 천 명당 발생 건수**
10세 미만	18,711	23.6	5.5	13,350	15.6	△5,361 (△28.7)	4.1
10대	5,558	7.0	1.2	4,556	5.3	△1,002 (△18.0)	1.0
20대	5,725	7.2	0.9	4,481	5.2	△1,244 (△21.7)	0.7
30대	7,537	9.5	1.1	6,920	8.1	△617 (△8.2)	1.1
40대	8,344	10.5	1.1	7,993	9.3	△351 (△4.2)	1.0
50대	8,361	10.6	1.0	8,122	9.5	△239 (△2.9)	0.9
60세 이상	13,935	17.6	0.8	18,382	21.5	4,447 (31.9)	1.3
기타***	11,093	14.0	-	21,835	25.5	10,742 (96.8)	-
총계	79,264	100.0	1.3	85,639	100.0	6,375 (8.0)	1.7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 위해자 연령대를 알 수 없거나, 국내언론, 해외정보 등을 통해 접수된 경우

2. 가정 내 안전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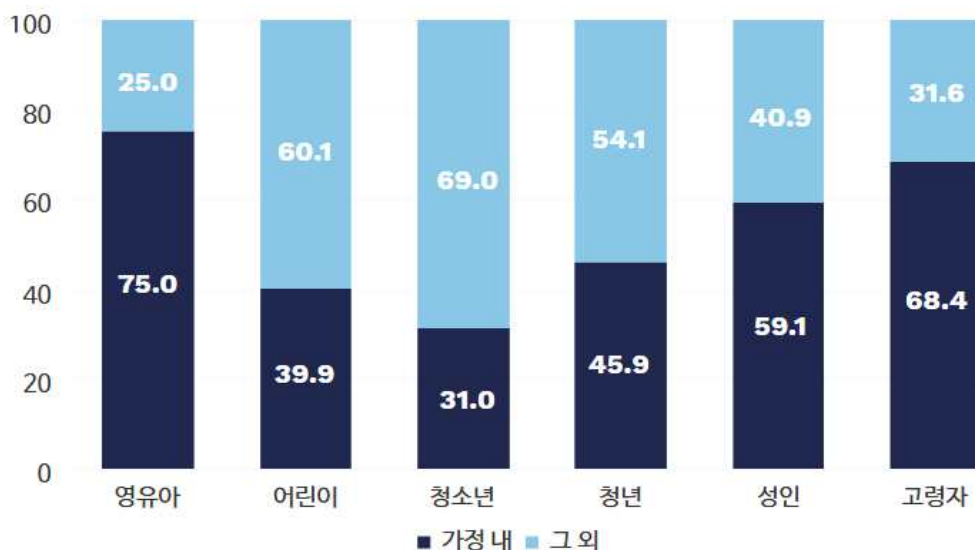
□ 생애주기별 현황

- 가정 내 안전사고 43,910건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38,383건을 생애주기별*로 분석한 결과, '영유아'(7,830건, 75.0%)와 '고령자'(10,751건, 68.4%)의 주택 내 위해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의가 필요함.

* 신체적·행동적·환경적 요인에 따른 유사성을 고려해 생애주기별 분석 수행

영유아(0~5세), 어린이(6세~12세), 청소년(13세~18세), 청년(19세~34세), 성인(35세~64세), 고령자(65세~)

[생애주기별 가정 내 위해정보 접수 비율]



(단위 : 건, %)

구분	전체 건수	가정 내	
		건수	비율
영유아(0~5세)	10,440	7,830	75.0
어린이(6~12세)	4,830	1,928	39.9
청소년(12~18세)	2,346	728	31.0
청년(19세~34세)	6,565	3,012	45.9
성인(35세~64세)	23,900	14,134	59.1
고령자(65세~)	15,723	10,751	68.4
총계	63,804	38,383	60.2

□ 위해원인별 분석

- 생애주기별로 가정 내 주요 위해원인을 살펴보면, ‘영유아’는 추락(3,252건, 41.5%)이 가장 많았고, ‘어린이’는 미끄러짐·넘어짐(465건, 24.1%), ‘청소년’ (285건, 39.1%)·‘청년’(973건, 32.3%)은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성인’은 기타 불량 및 고장(5,048건, 35.7%) ‘고령자’는 미끄러짐·넘어짐 (7,423건, 69.0%)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

[생애주기별 가정 내 상위 3개 주요 위해원인(소분류) 현황]

(단위 : 건, %)

순위	영유아(0~5세)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34세)	성인(35~64세)	고령자(65세~)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1	추락	미끄러짐·넘어짐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기타 불량 및 고장	미끄러짐·넘어짐
	3,252(41.5)	465(24.1)	285(39.1)	973(32.3)	5,048(35.7)	7,423(69.0)
2	미끄러짐·넘어짐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미끄러짐·넘어짐	미끄러짐·넘어짐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1,665(21.3)	421(21.8)	134(18.4)	482(16.0)	2,438(17.2)	1,119(10.4)
3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추락	약물 부작용	피열파손·긁여짐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677(8.6)	330(17.1)	53(7.3)	226(7.5)	1,475(10.4)	820(7.6)

□ 위해원인별/품목별 세부 분석

- 영유아·고령자의 주요 위해원인별 위해다발품목을 세부 분석한 결과, 영유아는 ‘침대’(1,550건, 47.7%)에서 가장 많이 추락했으며, 고령자는 주로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3,548건, 47.8%)에서 미끄러진 것으로 나타남.

[영유아·고령자의 가정 내 주요 위해원인·품목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주요 위해원인	위해다발품목				
		1위	2위	3위	4위	5위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영유아	추락	침대	소파	기타 의자	옷걸아입히는 테이블	식탁용 의자
	3,252(41.5)	1,550(47.7)	396(12.2)	153(4.7)	144(4.4)	122(3.8)
고령자	미끄러짐·넘어짐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	비닐바닥재	목재마루재	침대	문틀
	7,423(69.0)	3,548(47.8)	1,440(19.4)	1,068(14.4)	512(6.9)	318(4.3)

□ 위해원인별/장소별 세부 분석

- 영유아·고령자의 주요 위해원인별 위해다발장소를 세부 분석한 결과, 영유아는 ‘침실/방’(1,882건, 57.9%)에서 가장 많이 추락했으며, 고령자는 주로 ‘화장실/욕실’(3,338건, 45.0%)에서 미끄러진 것으로 나타남.

[영유아·고령자의 가정 내 주요 위해원인·장소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주요 위해원인	위해다발장소		
		1위	2위	3위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영유아	추락	침실/방	거실	주방
	3,252(41.5)	1,882(57.9)	731(22.5)	287(8.8)
고령자	미끄러짐·넘어짐	화장실/욕실	침실/방	거실
	7,423(69.0)	3,338(45.0)	1,800(24.2)	1,228(16.5)

□ 증상별 분석

- 생애주기별로 가정 내 위해다발증상을 살펴보면, ‘영유아’(1,735건, 22.2%)와 ‘고령자’(4,011건, 37.3%) 모두 타박상이 가장 많았음.
- 특히, ‘영유아’는 뇌진탕(858건, 11.0%), ‘고령자’는 골절(1,588건, 14.8%)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함.

[생애주기별 가정 내 상위 3개 주요 위해증상(소분류) 현황]

(단위 : 건, %)

순위	영유아(0~5세)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34세)	성인(35~64세)	고령자(65세~)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1	타박상	열상(찢어짐)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열상(찢어짐)	타박상
	1,735(22.2)	495(25.7)	171(23.5)	744(24.7)	1,220(8.6)	4,011(37.3)
2	열상(찢어짐)	타박상	열상(찢어짐)	열상(찢어짐)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골절
	1,724(22.0)	243(12.6)	147(20.3)	559(18.6)	1,113(7.9)	1,588(14.8)
3	뇌진탕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타박상	타박상	타박상	열상(찢어짐)
	858(11.0)	240(12.4)	73(10.0)	193(6.4)	1,082(7.7)	1,369(12.7)

안전한 생활환경 + 조성을 위한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수칙



침실, 주방 등 "후락사고" 주의



가구 위해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가정 내 설치된 가구 등의
위해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침대 낙상방끼 기구 설치하기

침대 낙상 방지용 안전 난간과
충격 흡수용 바닥 매트
설치하세요.



영유아는 보호자가 상시 관찰하기

영유아가 침대, 테이블 등
가구에 올라가거나 머무를 경우
주변에서 상시 관찰하세요.



기저귀 교환대 안전벨트 사용하기

기저귀 교환대 사용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활용합니다.



욕실, 화장실 등 "미끄러짐" 사고 주의



미끄럼 방지 타일(스티커) 시공하기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공
하거나,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밝은 조명 설치하기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밝은 조명을 설치합니다.



바닥 물기 제거하기

바닥 물기를 즉시 제거하고,
미끄러지기 쉬운 슬리퍼의
사용을 자제합니다.



안전 손잡이 부착하기

변기와 세면대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부착합니다.

